

MUMBAIKAR

- 뭄바이에 사는 사람들

RaonAtti 9th 인도 뭄바이팀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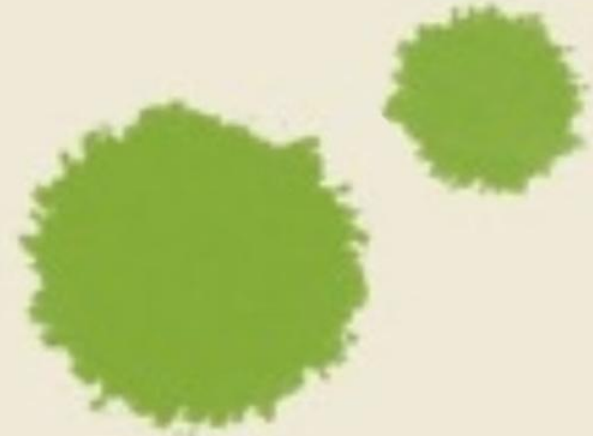
1. 3월 일정 소개
2. YMCA Branch 소개
3. 문화 체험
4. 관계 맺기
5. 궁금증 & 고민
6. Photo Essays
7. Life in Mumbai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 인도 도착	8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체험 실무자 만나기	9 Branch 방문 및 Hostel Day
10 뭄바이 둘러보 기(Gate of India)	11 Branch 방문	12 Branch 방문	13 Branch 방문 Hindi Class NSC	14 Mehendi Hindi Class NSC	15 Nursery Mehendi Hindi Class NSC	16 DCC
17 Procter Hostel Day	18 Nursery Mehendi Hindi Class NSC	19 Nursery Mehendi Hindi Class DCC	20 YWCA 청강	21 KOTAK Mehendi Hindi Class	22 Mehendi Hindi Class DCC	23 DCC Boy' s Home 수명장 큰공식
24 Day off	25 ORD 스태프 피크닉	26 Nursery Event	27 HOLI	28 Nursery Mehendi Hindi Class	29 Good Friday	30 DCC
31 Melvin집 방문						

Branch 방문

3월 7일 Mumbai에 도착해서 첫 주 동안 8개의 branch를 방문하여 각 기관장들을 만났다. 동시에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스포츠, 직업 교육, 유치원)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직접 참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특히 Ymca에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업 교육 이후에, 실제로 인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서 Ymca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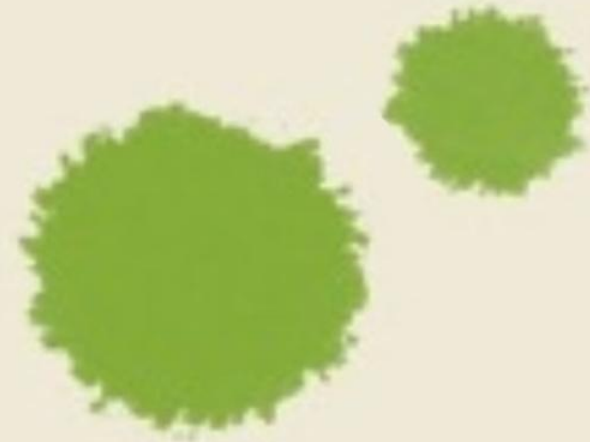
문화 체험



Mehendi

YMCA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매헨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Jinson이 선뜻 매헨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서 Sonam, Jyoti, Priyanka가 매헨디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필로 스케치해서 디자인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 매헨디를 사용해서 도화지에 그려보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인도 여성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여성들과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팀원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인도인들에게 직접 해줄 수 있어서 보람도 느꼈다.





Hindi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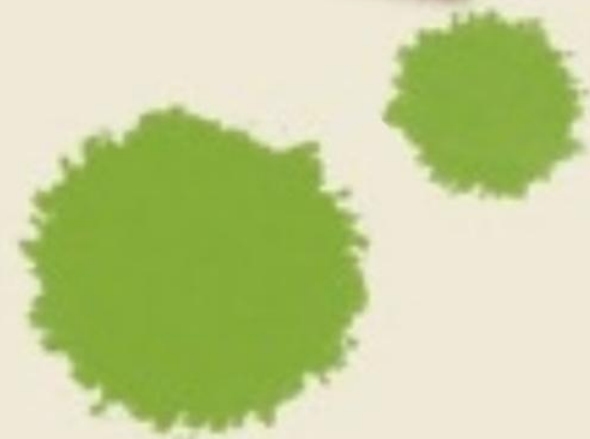
인도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현지 언어를 배웠다. 인도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힌디어는 가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 중 하나여서 힌디어를 배우게 되었다. 아이들이나 현지인들과 만날 때 힌디어를 사용하니 그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그들은 우리의 미숙한 힌디어를 듣고서 미소를 짓거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힌디어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



Holi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열린 Color 축제에 실제로 초대받아 갈 수 있었는데 서로에게 꽃을 뿌려주거나形形色색의 가루를 몸에 묻히면서 서로의 행복을 바랐다.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축제라, 매우 새롭게 느껴졌다. 특히, 이 날에는 모든 인도인들이 이 축제를 즐겼는데 평상시에는 매우 복잡하던 뭍바미의 도로도 한산해지고 거리의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International Women's Day

뭄바이 YMCA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여성 인권을 위하여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소에 여성의 권리가 역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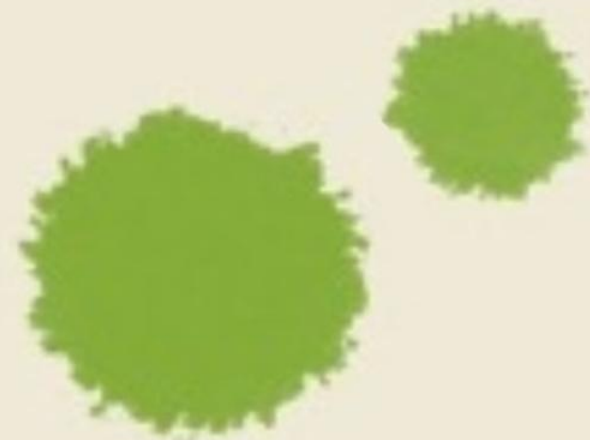
관계 맺기



Nursery

ORD Branch에서 5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pre-school로서 오전에 교육 활동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Nursery에 수업에 참관하여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였으며 선생님을 도와 보조교사 활동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의 유대감도 형성하였다. 그리고 nursery event에서도 보조 역할을 맡아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왔다.





Daycare Center(DCC)

Kamatipura 라는 홍등가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center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돌보아준다. 선생님 1명과 helper 1명이 있고, 오전에는 50~60명의 아이들을 위한 pre-school과 약 15명의 아이들을 위한 daycare center가 동시에 운영된다. 우리는 영어노래와 율동을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거나 공, 불링, 퍼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센터 주변 환경을 관찰하였는데, 슬럼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건강, 치안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그래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였고 센터 외벽에 벽화를 그리기로 결정하였다. (깨진 유리창 이론, 밝은 가로등이나 밝은 분위기의 벽화가 사고를 예방한다는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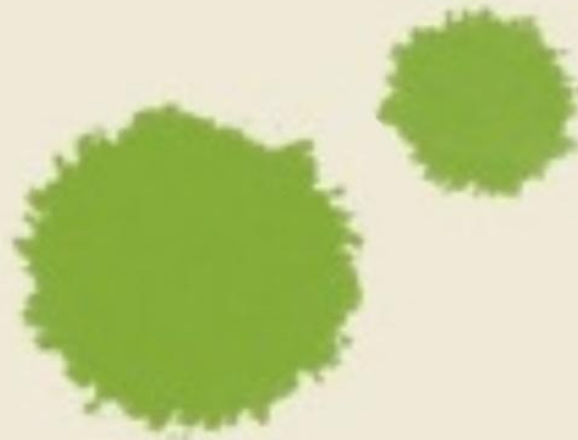
Night Study Center(NSC)

Night study center는 공부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의 교육 시설이다.

2개의 교실로 나뉘어 저학년 아이들과 고학년 아이들이 따로 학습하고 있고 우리는 저학년 반에서 알파벳과 영어 노래를 가르쳐 주고 함께 볼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

이들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시험기간까지 겹쳐서 단 5일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다.





공금증 &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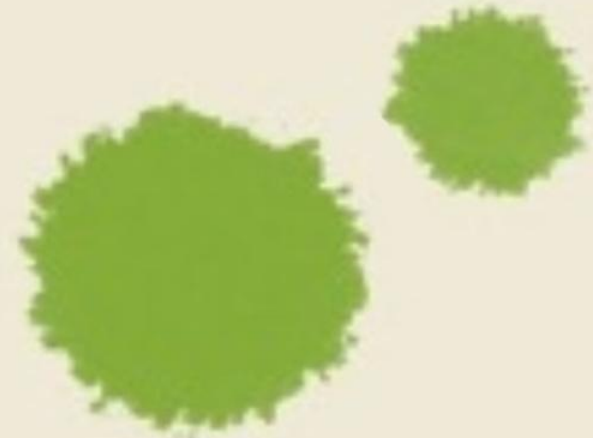
뭉바이는?

인도의 경제 수도인 뭉바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급격한 도시화를 겪었던 것처럼 그와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 온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다(다양한 문화와 종교, 언어가 공존). 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영어를 구사할 줄 알고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살게 되고 이들이 모여서 슬럼을 형성했다. 그에 따라 빈부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어디서든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른아띠는 왜 우리를 '뭉바이' 로 보냈을까?

다른 파견국가의 도시에 비해 우리 뭉바이 팀은 대도시인 뭉바이로 오게 되었다. 뭉바이에는 인도에서 가장 거부인 사람을 포함하여 너무나도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시에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 이러한 모순적인 도시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직접 이 곳에서 살면서 이 모순을 조금이나마 체감하며 질문의 답을 찾고 싶다.



우리의 일에 대한 고민

현지 컨디네이터와 대화하면서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14세 이상 청소년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미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고착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전문가도 아닌 우리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인도사회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려 하는 것은 오히려 자만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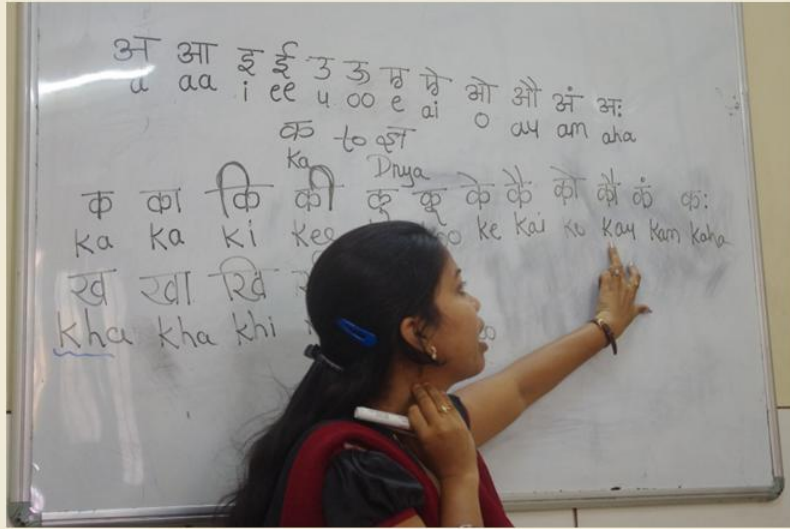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가 사회문제를 바꿀 수 없겠지만 문제를 겪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직업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비록 4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현지 컨디네이터 및 Social-Worker들과 함께 인도 사회를 조금씩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포토 메세지



SONAM(박선영)



힌디어 수업을 받는 도중 찍은 사진 - 사진에 나온 분은 우리에게 힌디어를 가르쳐준 스왑날리(swapnali)!! 스왑날리는 약 2주에 걸쳐 우리에게 힌디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teacher' 라고 부를 때 마다 호칭을 '스왑날리' 라고 정정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듣고 보니 스왑날리는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자꾸 우리에게 자신을 teacher가 아닌 스왑날리라고 부르게끔 했다. 이 말을 들으니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스왑날리의 마음이 예쁘게 느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교사의 역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았다. (학생들과 같이 배워나간다는 평행한 관계,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으면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사상에 대한 고민)

또한 이렇게 힌디어를 배우고 나서 현지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의 간단한 힌디어를 듣고 활짝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마음을 열었고 나에게 한 마디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했다. 이로 인해 언어의 힘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에서, 특히 뭄바이에서는 힌디어, 영어, 마라티어 (마하라슈트라 주 언어) 등을 사용하는데 뭄바이에 사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다양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느꼈다. 인도의 대중 스포츠 '크리켓' 이 이런 인도 안에서의 다양함과 혼란스러움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도 흥미롭게 느껴졌다.

AMAN(고동진)

인도에 온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었다. 익숙해지지 않은 것만 같은 거리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걸 보니 새삼 적응이라는 것이 무섭기도 하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들에 놀랐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수의 홈리스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노숙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집은 거리였으며 그곳에서 의식주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의 민낯자들이 왜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걸어 다니는지가 궁금했었다. 분명히 인도라는 구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들이 매연을 뿜어내고 경적을 울려대는 차도로 우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지금은 왜



홈리스들의 집 풍경, 뭉쳐놓은 것들이 바로 그들의 살림살이이다. 그 안에는 옷부터 해서 이불, 접시, 냄비 등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 가족이 모두 외출한 텅 빈 집이다.

그랬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는 홍리스들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먹은 음식을 하기도 하며 스스로를 씻기도 하고 종종 화장실로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그곳에서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한다. 이렇게 한 가정의 인도에서 사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다. 근처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악취가 났고 그들 주변에는 쓰레기와 오물들이 널려있었으며 그들과 흑여 눈이라도 맞추게 될까 굉장히 두려웠다.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도 아닌데도 말이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했듯이 적응을 하고 나니 어느새 그들이 내 시야에서 지워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을 처음 봤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비록 내 자신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 이런 나의 생각들이 흐려져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 아닌 실망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몰 때 가져온 나의 마음가짐이 벌써 무너지고 있었다니!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떤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그 가난이 고착화 되어있어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혹은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었다. 물론 가난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했었지만 그러한 고민과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왔고 결국 그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진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그저 내 한달 간의 활동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내게 변명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긴 하다. 하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내 자신이 한발자국 나아가려고 한다. 전에는 한계에 좌절하고 회피하려 했다면 이제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현상 자체를 보려고 한다. 앞서 언급했던 한계는

문화차이에서 오는 점이 많고 우리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거라 생각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습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던지는 노력을 앞으로 4개월 동안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그들이 내 시야에서 지워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거리의 왼쪽에는 상가들이 오른
쪽에는 슬럼이 형성 되어있다.
슬럼이 도시 안에 혼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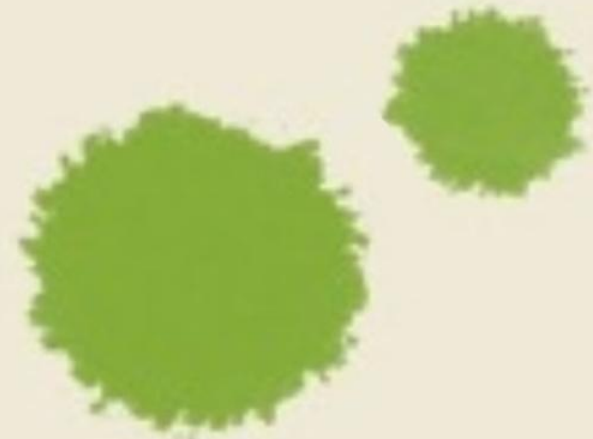
PRIYANKA(김조은)

내가 고른 이 사진은 우리팀이 처음 인도에 내리자마자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나의 3월 포토 에세이로 고른 이유는 나의 첫 인도에서의 한 달을 정리하면서 인도에 오기 전과 후의 달라진 나의 마음 가짐을 다시 정리하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한달 동안 생활 하면서 팀원들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에세이로나마 전하고 싶다😊

7시간에 걸쳐서 온 인도에서의 생활은 나의 생각과 매우 많이 달랐다.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는 정해진 기관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생활을 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인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행복한 일만 있지 않았다. 상상이상의 절대 빈곤 속의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일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만 했다. 또한, 신문에서 연일 나오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소식은 인도인들과 소통과 관계 맺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했다. 내가 생각했던 인도와 내가 실제로 겪은 인도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과연 내가 5개월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이런 공포감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인도에 대해 벽을 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벽을 극복하고 뛰어 넘는 데에는 팀원들의 많은 격려가 도움이 되었다. 괜히 많은 것을 겪어 보지도 않고 스스로 마음 속으로 공포심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의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 뒤로는 인도에서의 관계맺기, 내가 살고 있는 뭄바이라는 도시 알아가기 등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고 나니 내가 다니는 길도 익숙해지고 지금은 혼자서 아니지만 현지인 없이 팀원끼리 가고자 하는 곳도 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활동하는 곳의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이런 변화는 매우 놀랍다. 그리고 아직 한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변화가 생긴 나 자신에게도 놀랍다. 남은 4개월 동안 나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한달 동안의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팀원들에게도 너무 고맙다. 항상 팀에서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생각해주는 팀원들이 너무 고맙다. 인도팀 우리 4개월 동안 우리 3월 지낸 것 보다 더 화목하고 행복하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용~



JYOTI(천보람)



그렇게나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오고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왔던 인도의 아이들과, 인도를 만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라서,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 때문에 나의 매일 매일이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좋다.

인도에 처음 도착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인도 사람들의 모습,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도 사람들 그리고 인도 냄새로 추정되는 특이한, 그리고 너무 좋은 냄새도. 또 진짜 좋았던 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습함과 더운 열기와 밤 공기가 진짜 너무 좋았다. 처음 만난 인도의 첫 인상이 그렇게나 좋아서 너무 좋았다. 하지만 주어진 5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후회없이 짹 짹 가득 채워서 지내고 싶다.

3월, 뭄바이 ymca의 branch들을 둘러보고, ymca 사람들을 만나고, 뭄바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조금씩 적응해 가는 한 달이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nursery, night study center, day care center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첫 3월 한 달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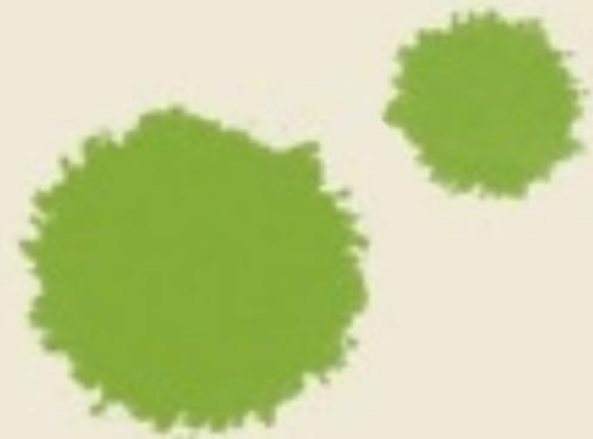
우리들이 만나러 가는 어느 센터의 아이들이건, 아이들은 선생님께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가면 낯선 외국인인 우리로 인해서 아이들이 진짜 요란 시끌 벅적 해지고 교실 분위기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는 게 분명 보이지만, 그냥 너무 아이들이랑 있는 그 순간이 좋다. 나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그래서 아이들 역시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해주기를 바라게 된다.

누구나 분명히 그런 면이 있겠지만, 나는,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누군가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참 어려워 하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 밝은 모습으로 대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과 진짜로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도 무척이나 어렵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나의 그런 모습을 느끼지 않는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순간만큼은 어떠한 방어적인 태도도 갖추지 않고, 진심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마음을 너무나도 활짝 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힌디어를 사용하는 인도 아이들을 만나면서, 비록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표정으로, 웃음을 통해서, 이렇게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을 만날 때만큼 진심을 다하는 내 모습을 나 스스로가 보게 된다.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그 자체로도 좋고, 아이들과 있을 때면, 그 순간에 가식을 포함하지 않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내가 안고 있는 아이,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아이, 내가 손을 잡고,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는 아이, 내가 뽀뽀해주고, 내가 달래주고 있는 아이, 나를 부르고 있는, 내 이름을 불러 주고, 나에게 안기려고 달려 오는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있고, 아이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너무 행복한 매일 매일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계속~~~~~속 보내고 싶다.

앞으로 남은 4개월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진짜 진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너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를 너무나도 두근거리게 하는 india!!



ABHISHEK(나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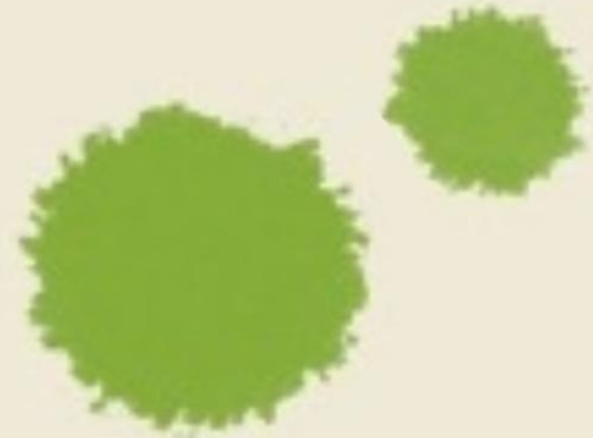


3월. 다양한 색으로 칠해진 곳, 뭉바이

매년 3월 27일 인도에서는 서로에게 다채로운 꽃을 뿌리고 가루를 칠하며 즐기는 color holiday가 열린다. 온 거리의 사람들이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등 수 많은 색을 뒤집어 쓰고 춤을 추며 흥겹게 노는 인도의 큰 명절 중 하나이다. 이 날 우리 역시 로터리 클럽에서 주최한 color festival에 초대받았다.

맛있는 음식, 흥겨운 노래와 춤, 흥날리는 꽃가루와 물감을 서로에게 뿌리며 한국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약간의 밀탈(?) 속의 재미를 느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도인들과 함께 춤추고 즐기며 인도인들의 축제 문화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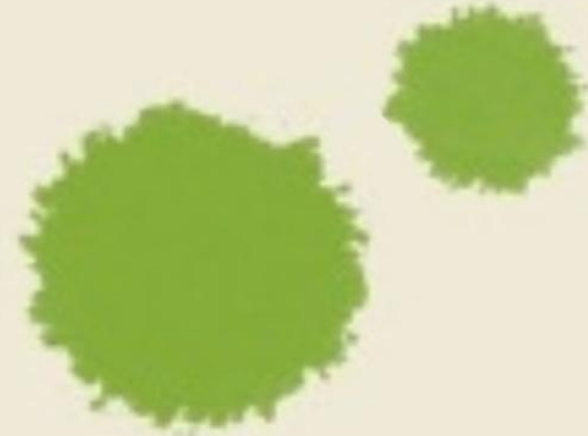
뭄바이에서 생활한 지 아직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지금, 뭄바이에 대한 내 느낌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처럼 특정 단어로 정의할 수 없고, 특정 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함이 있다. 마치 사진에서 우리의 얼굴에 칠해진 다양한 색처럼 뭄바이에도 다양한 색이 칠해져 있다고 느껴진다.



길거리를 걸거나 차를 타고 다니면 모든 것이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초고층 빌딩과 판자촌이 공존하고, 마린 드라이브의 야경을 즐기는 커플들 옆 길바닥에서 자는 홈리스(Homeless)들. 비싼 외제차와 수레를 끌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곳. 힌두교, 이슬람교도 뿐 아니라 수 많은 종교 문화가 있는 곳이자, 수십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곳. 극과 극의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뭉바이를 한 가지 색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동시에 문득 한 달 동안 함께 했던 인도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다. 그리고 이 고민이 라온아떠로서의 목적의식으로 이어진 것 같다.

나는 한국에서 온 손님인가 아니면 라온아떠 Abhishek인가?

스스로를 반성하자면, 손님처럼 친절하고 편한 대우를 받는 것을 어느 날부터 당연하게 여긴 적도 있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나 스스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 많은 인도인들을 만나며 이 날 내 얼굴에 칠해진 뭉감처럼 즐겁게 묻어서 그들의 색이 나에게 칠해져 천천히 스며들고 손님이 아닌 친구(dost)가 되어야겠다.



Life in Mumbai









